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신학 전문, 세션 3, 삼위일체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성경 및 2세기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학 자체 또는 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삼위일체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성서적 및 2세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여, 우리는 당신 앞에 절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공부하는 동안에도, 당신이 영원부터 삼위일체이심을 점차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성경에 대한 좋은 내용을 조금 더 다룬 후 삼위일체의 역사적 신학을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오류를 거부하면서 성경의 메시지에 비추어 기독교 신학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The Holy Trinity in Scripture, History, Theology, and Worship, 2004 에서 도움을 받은 것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Robert Letham, LETHAM, *The Holy Trinity*. 수상 경력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Hell Under Fire for Zondervan 을 이겼는데, 이 책은 파이널리스트였지만 Letham이 이겼고 그는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지만 체계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지만 체계화하지 않습니다.

교부들은 성경적 궤적을 따르고, 한 분의 신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것이 길고 힘든 과정에 대한 아주 간략한 요약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확언합니다. 신명기 4:35. 유명한 신명기 6:4. 디모데전서 2:5, 야고보서 2:19. 삼위일체 교리의 나무는 신약에서 자라지만, 그 뿌리는 구약에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적 발전은 신약의 삼중적 또는 삼위일체적 신 이해입니다. 이 삼위일체적 패턴은 교회가 신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명의 다른 신약 저자가 쓴 이 패턴을 보여주는 일곱 구절 목록입니다.

그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 흔히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또는 셋의 패턴입니다.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은 대명령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삼중 패턴입니다. 갈라디아서 4:4-6, 입양 본문.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의 입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들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4-6 . 마지막 문장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성령을 지칭하는 방식이며,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맥락에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침반, 아버지, 성령, 아들. 그리고 다시, 그 영은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절이 있고, 절도 없고, 동사도 없습니다. 그의 아들의 영, 아버지의 아들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은 단순히 입양의 영, 아들됨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으니, 내가 말하였느니라. 히브리서 9:14, 하물며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그 일을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 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이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요. 이것은 내가 아는 성경에서 성령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적 죽음, 영원한 영을 통해. 소수의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는 필립 휴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역사적 해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윌리엄 레인이 히브리서에 대한 그의 위대한 주석에서 말했듯이, 성령이 예수의 희생에서 하는 역할은 그것을 절대적인 희생으로 만들어 다른 모든 희생을 종식시킵니다. 당신은 말할 수 있고, 저는 이것을 만들어냈고, 지금 저에게 떠오릅니다. 희생의 희생은 히브리서 9:15에 따르면 모든 이전 희생을 합법적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빼격거리며 멈추게 하고, 더 이상 희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여야 합니다 . 다시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모든 다른 저자들, 베드로전서 1:1과 2에서 반복됩니다.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지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통해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1과 2. 이 맥락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베드로에서 자주, 바울에서 가끔 그렇듯이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뿌려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예지, 성령의 거룩함, 이 경우 초기, 확정, 그리고 아들의 피가 순종하는 자들, 즉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뿌려집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순종하다, 순종하다, 불순종하다,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연구해보면, 어떤 때는, 상당 부분 믿음과 불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항상 그렇듯이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요한일서 4:13과 14,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다, 또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우리는 보고 증거하노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셨느니라. 저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번역을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 기독교 표준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영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두 구절 안에, 아니면 유다서 20절과 21절은 어떨까요? 우리는 앞서 인용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며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십시오. 분명히 아버지이신데, 그는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삼중 패턴입니다.

계시록 1:4과 5에서 바로 이 패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계시고,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충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분명히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이십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성령을 지칭하는 방식이며, 그것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섯 명의 다른 작가가 쓴 일곱 개의 신약 구절을 보았습니다. 영감을 받은 작가들은 이 삼중, 세, 삼위일체 패턴, 이 삼위일체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하나라는 성경의 이해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학적 도전은 그 진리를 새로운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과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기도 전에 그를 숭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숭배하는 것은 그의 신성을 암시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실제로 체계를 만들고 삼위일체 교리를 체계화할 때 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며,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며,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의 신성 아래에서, 우리는 그가 헌신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대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신이라는 사실에 대한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배하는 것은 그의 신성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죄인으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과 관계를 맺었고, 피조물들은 그들의 신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과제는 복잡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제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의해 도움을 받았고, 교회는 그 거짓 가르침에 대응했습니다. 즉, 삼위일체 교리의 역사는 그리스도 교리의 역사와 함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섭리로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진실, 좋은 가르침으로 대응하도록 인도하셨지만, 오류, 심지어 이단에 의해 이 궤적을 따라가도록 부추겼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는 데 몇 세기가 걸렸습니다. 저는 교부 신학에 가장 뛰어난 JND Kelly, 유명한 성공회 역사 신학자이자 교회 역사가인 *Early Christian Doctrines*, JND Kelly의 저서 83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적 신조는 하늘과 땅을 만든 한 분의 신을 믿는다는 선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에 기반을 둔 일신교 사상은 초기 교부들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신학자들의 텍스트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요.

예를 들어, 칼케돈에서 볼 수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가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최종 형태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성찰적인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교회와 이교도 사이의 경계를 표시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적 교부인 헤르마스의 목자에 따르면, 첫 번째 계명은, 인용하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확립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과 위대한 지혜로 우주를 창조하고 그의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그의 창조물을 아름다움으로 입히고 그의 강력한 말씀으로 하늘을 고정하고 물 위에 땅을 세우신” 분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성찰적인 신학자는 아니지만 훌륭한 작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아버지이자 창조주입니다.

바나바와 또 다른 사도 교부, 그리고 디다케에게 그는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그의 전능함과 보편적 주권은 인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에 나오는 성경적 표현인,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교부들은 이런 종류의 말을 했습니다.

전능하신이라는 칭호는 현실에 대한 신의 만유에 걸친 통제와 주권을 의미하는데, 이는 아버지가 주로 모든 것의 창조자이자 저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언급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거의 전적으로 성경과 후기 유대교에서 유래했으며, 현대 철학에서는 거의 유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특히 신앙의 초기 수호자인 변증론자들은 세속적 사상을 사용했는데,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두 번이나 사용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Justin Martyr, 약 100년에서 약 165년, c.는 라틴어 circa를 의미하며, 약을 의미합니다. 그의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00년에서 165년으로 추정됩니다.

저스틴에서, 신의 일체성, 초월성, 그리고 창조적인 역할은 당시의 플라톤적 스토아주의에 의해 강하게 채색된 언어로 주장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 철학에 젖어 있고, 그것은 드러납니다. 그리스 사상가들이 그것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진심 어린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들 속의 진실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아마도 좋은 변증일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오류라는 것을 알지만, 당시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이 영원하고, 형언할 수 없고, 이름이 없고, 변함없고, 지나갈 수 없고, 무생명하다고 말합니다.

독창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기술 용어입니다 . 그리스어입니다. 그는 또한 우주의 창조자, 모든 것의 창조자이자 아버지이며, 존재 위에 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의 원인이며, 교회를 공격한 유명한 영지주의 이단자 마르키온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신과 데미어지 사이에 구별을 그은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신이 세상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데미어지라고 불리는 이러한 중간 존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배웠다고 그는 말한다. 이것은 태초에 무형의 물질로 만든 저스틴이다. 이것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가르침이었는데, 저스틴은 창세기에 있는 것과 유사하고 그것을 빌려온 것으로 여겨졌다. 우리는 저스틴의 마음, 심지어 그의 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오, 그는 자신의 물건 중 일부를 뒤섞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성경에서 빌린 것에 감사를 포함합니다. 물론 플라톤에게는 선재 물질이 영원했지만, 저스틴이 이 이원론적 결론에 동의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는 모세에 따르면 먼저 창조된 하늘과 땅을 신이 우주를 형성한 재료로 여겼을 가능성이 더 큼니다. 그가 언급한 또 다른 중요한 요점은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함에 있어 그의 로고스, 즉 그의 말씀을 그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변증론자들은 유스티누스와 같은 입장을 취했지만, 무(無)에서 무(無)로의 창조에 대해서는 더 확실했습니다.

타티아노스는 아테나고라스와 안티오크의 테오필루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 모든 인용문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레네우스는 나중에 나오지만, 이레네우스와 함께, 변증론자, 신앙의 초기 수호자, 위대한 신학자는 아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철학에 정통한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이고,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 두 가지를 함께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레네우스는 최초의 진정한 기독교 신학자로 여겨지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을 내린 진정한 사상가입니다. 이레네우스와 함께 신을 유일신이자 창조주로 단언하는 것이 특별한 중요성을 띠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변증론자의 임무와 달랐는데, 알 수 없는 최고신으로부터 내려온 에온의 위계 이론과 그와 창조주 또는 데미우르고스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추론을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우주론이에요, 알겠어요? 알 수 없는 신, 이 에온의 전체 계층, 이 창조된 존재들, 그와 창조한 신, 구약성서의 창조주 신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요. 그들은 구약성서에 대해 높은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 마르키온은 그것이 데미우르고스로부터 온 것이지 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신은 신약을 책임졌지만, 신처럼 보이는 부분, 신을 창조주로 제시하는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제 말씀, 그는 본문을 했고, 신약의 내용 비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내가 당신에게 조금 읽어줄까요... 이레네우스는 그 개념을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데미우르고스라고 부르는 것은 신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죠. 신성모독적으로, 그들은 그를 유산된 산물이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는 그 위어나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신이시며, 오직 주님이시며, 오직 창조주이시며, 오직 아버지이시며, 오직 모든 것을 포함하고 존재를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설명한 신앙의 첫 번째 조항은, 이레네우스가 한 대로, 인용하자면, 창조하시고 태어나지 않으신, 보이지 않는, 유일신이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는 창조주가 구속주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함께 위대했습니다.

콜로새서 1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그분, 알겠죠? 창조 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창조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 분이 죽음에서 먼저 나셨기 때문에 구속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사이의 중요한 연결 고리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창조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이레네우스는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은 Against Heresies(이단에 대항하여)라고 불리며, 당신은 바로 여기서 그의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은 세상에는 오직 한 명의 제작자가 있으며, 그는 율법과 선지자가 선포한 신과 동일하며, 언약의 통일성, 그리고 신의 이야기의 통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이 그의 말씀과 그의 지혜 또는 영, 말씀, 아들, 지혜, 영을 통해 창조 활동을 행사한다고 가르쳤고, 인간은 실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고, 이미 그들 앞에 있는 물질에서만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스펀전이 생각납니다. 제 목사인 벤 리스는 스펀전을 자주 인용하는데, 스펀전은 오, 파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곤충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흥분했습니다. 아름답죠.

이레네아적 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 즉 인간은 이미 그들 앞에 있는 재료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은 이 주요 측면에서 인간보다 우월합니다. 즉, 그가 직접 창조물을 위한 재료를 제공했지만, 그것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원리를 확립하기 위해 이레네우스는 성경 외에도 우리의 자연적 이성에 호소합니다. 창조적인 것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제1원인으로부터 존재의 시작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비슷하게 들리며, 신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레네우스처럼 들립니다. 그는 아무에게서도 나오지 않았고, 모든 것은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포함되고, 세상 속에 인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도 신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알 수 없는 신과 더 높은 신성의 세계 사이에 일련의 발산이 있다고 가정하는 데 관련된 모순을 폭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용하자면, 영지주의자들이 플레로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추론으로, 즉 이 중개자, 즉 하늘과 땅의 창조주 위에 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추론으로, 플레로마 위에 또 다른 플레로마가 있고, 또 다른 플레로마가 그 위에 있고, 비토스 위에 또 다른 신성의 바다가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교리는 무한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는 주장하고 있고, 그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 무한대로의 논리적 논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Pleiomata 와 다른 Bythi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그것은 그 단어들의 복수형입니다. 어떤 경우든 모든 종속적인 발산은 그 원리의 본질을 공유해야 하지만, 신격의 개념 자체는 신들의 복수성을 배제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뜻에 따라 만든 한 분의 신이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소문자 g로 시작하는 여러 개의 불확정한

피조물이나 신이 있어야 하며, 각각은 시리즈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우리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는 나머지와 비교할 때 결함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칭호는 무로 전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의 데미우르고스는 자신보다 우월한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보다 신이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약 당신이 이런 일련의 축소된 신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위대한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 세상에, 교회의 신앙, 한 신, 아버지와 창조주에 대한 교리는 교회 신앙의 배경과 확실한 전제를 형성합니다. 유대교에서 물려받은 그것은 이교도 다신교, 영지주의적 발산주의, 마르키온주의적 이원론에 대항하는 그녀의 방벽이었습니다.

신학의 문제는 특별히 기독교 계시의 신선한 데이터를 지적으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축소하면,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인격으로 자신을 알리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체성과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새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두 가지 확신.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라는 인격으로 자신을 알리셨고,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으며,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셨으며,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선재와 창조적 역할에 대한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성령의 활동에 대한 심오하지만 종종 모호한 인식이 나타났습니다. 성경 자체는 이러한 진리를 일관된 교회에 넣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기 위해 몇 세기를 기다려야 했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단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신 한 가지 방법이었지만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공식화가 있고, 초기 교부들 중 일부는 좋은 움직임은 보였지만, 역사 신학의 원칙은 초기 작가들을 후기 공식화로 판단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진전을 이룬 테르툴리아누스는 니케아와 칼케돈에 대한 기술적이고 자세한 연구에 따르면 합격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를 후기 공식화와 어휘로 평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동서양은 어휘에서 함께 할 수 없었고, 아타나시우스가 겸손한 정신을 보였을 때, 그것은 동서양의 교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거래를 중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용어를 매우 다르게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다른 관점, 다른 용어에 대한 정의가 그들을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스틴 순교자입니다. 저스틴은 여러 차례 세 사람을 조정하여 때로는 세례와 성찬례, 주님의 만찬에서 파생된 공식을 인용하고, 때로는 공식적인 교리 문답 가르침을 되뇌었습니다.

따라서 각자는 기독교인에게 제기된 무신론 혐의에 반박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로마의 신이나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론자였습니다.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하면 우리가 당신을 해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죽었습니다. 저스틴은 그들이 성부, 성자, 예언적 영에게 바친 경의를 지적함으로써 무신론적 비난에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저스틴 순교자의 글에는 성령이나 예언적 영에 대한 언급이 넘쳐나고, 그는 종종 자신의 기능과 로고스의 기능의 관계에 대해 모호했지만, 플라톤의 글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추출하려는 시도는 그가 둘을 실제로 별개로 여겼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초기 교부들과 변증론자들. 다시, 우리는 변증론자들이 아들을 경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공을 돌리죠, 맞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요한계시록 19장에서처럼

아들을 로고스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요. 하지만 변증론자들은 로고스에 대한 생각과 비교했을 때 영의 정확한 지위와 역할에 대해 매우 모호했던 듯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휴식을 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의 본질적인 기능은 선지자들의 영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말이 되지 않나요? 이것을 발전시키면서, 저스틴은 우리가 일요일 아침 예배에서 읽는 이사야 11:2를 해석합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게 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언이 그칠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이후로,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될 것이고,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은사와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교를 최고의 철학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변증론자들은 바로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최고의 철학이 바로 그리스도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맥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학자들에게 말하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변증론자의 생각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 신앙의 삼중 패턴을 일관된 체계로 정리하는 데는 매우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스틴이 성육신에서 성령에게 어떤 역할도 할당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아들이 성육신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니케아 325년 이전에 다른 신성한 니케아 교부들처럼, 그는 루가복음 1:35에 언급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신성한 영과 능력을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 즉 성육신 이전의 말씀 또는 아들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가 축복받은 동정녀의 태중에 들어가 자신의 성육신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상상하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교리의 완화제는 이미 변증론자들에게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합니다. 그 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말씀처럼 그는 신성한 본성을 공유했습니다.

아테나고라스의 말에 따르면 신으로부터의 유출입니다. 저스틴의 언어 대부분이 그를 하위 개인 반지로 언급했지만, 그가 예언적 영에 대해 말할 때 더 개인적이 됩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모세로부터 세 번째 영에 대한 개념을 빌려왔고, 샘에 코르의 동상을 세우는 이교도 관습이 영이 물 위를 움직이는 성경적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그의 변론에 담긴 개인적 의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스틴이 수장으로 여겨지는 변증가를 위한 일종의 결론적인 말입니다. 따라서 변증가가 작업한 이미지, 즉 자신의 생각과 정신을 외부 활동으로 내놓는 사람의 이미지는 그들이 신격의 다양성을 희미하게나마 인식할 수 있게 했고, 또한 공간과 시간의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말씀과 정신이 어떻게 아버지의 존재 안에 머물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와의 본질적인 연합, 그와의 본질적인 연합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레네우스, 초기 교회의 주요 신학자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120-140년 사이 어딘가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우리는 그의 죽음에 대해 더 나은 추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3년이나 204년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위대한 반대자. 저는 신학교 때, 만약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가서, 또는 2세기로 돌아가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다면, 기독교인보다 영지주의자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리스 사상, 그리스 철학이 그랬습니다.

2세기 사상을 요약하고 기원 전 기독교 정통을 지배한 신학자는 이레네우스였다. 그는 변증가에게 큰 빛을 쬐다. 그는 그들보다 자의식적인 교회인이었고, 기독교의 신앙의 삼중 원칙에 더 공개적으로

집착했으며, 이를 형성할 준비가 더 되어 있었지만, 그의 사고의 틀은 그들의 사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했다.

따라서 그는 두 방향에서 하나님께 접근하여, 그가 자신의 본질적 존재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또한 그가 창조된 세계와 구원의 역사에서 경제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모두 상상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기 계시의 질서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임박한 삼위일체와, 제가 말을 잃었지만, 계시된 삼위일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시도하지 않으면 나올지도 몰라. 전자의 관점에서,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이 하나이시지만, 영원부터 자신을 포함하시고,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리거나 창조와 구원을 위해 노력하실 때, 하나님은 이것들을 아들과 성령으로 추론하거나 나타내십니다.

그들은 그의 손이며, 유명한 이레네우스는 아들과 성령을 신의 손, 그의 자기 계시의 수단 또는 형태라고 부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이레네우스는 그의 존재의 본질과 본성으로 인해 오직 한 분의 신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경륜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쉽게 성령을 추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철학적 전문 용어를 의도적으로 피함으로써 변증론자들과도 차이가 있었던 변증론자들보다 앞서 있었던 부분은 A였습니다. 경제에 대한 그의 개념을 더 확고하게 이해하고 더 명확하게 진술한 그의 A는 경제적 삼위일체, 즉, 세 인격으로서의 신 자체, 그리고 경제적 삼위일체, 예를 들어 창조, 섭리, 구원에서 드러난 삼위일체입니다. 하지만 이레네우스는 경제에 대한 더 큰 이해를 통해 변증론자보다 나아졌고, B는 삼위일체 또는 삼중 구조에서 영의 위치를 훨씬 더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레네우스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저자인 아버지의 독특성과 초월성을 강조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문에서, 전적으로 마음과 말씀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의 생각은 그의 말씀이며, 그의 말씀은 그의 지성이며, 아버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지성입니다. 인용문 닫기. 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합리적이시므로, 그는 자신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증론자에게서 매우 친숙한 로고스, 즉 신의 임박한 합리성에 대한 말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이를 창조 등에서 외삽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이레네우스는 신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과 말의 선언 사이의 선호되는 유추를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신이 그의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실, 이사야 53장 8절에서 그의 단서를 얻어, 그에 따라 누가 그의 세대를 설명할 것인가? 그는 말씀이 생겨나거나 나오는 과정을 탐구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그들이, 그리고 변증가보다 훨씬 더 두드러진 부각을 던지고, 그는 또한 변증가보다 더 두드러진 부각을 던지고, 영원부터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존재했다는 것을 던집니다. 그리고 여기 한 분의 신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진정한 사상가임을 알 수 있고, 그는 씨름하고 있으며, 삼위일체에 대한 세련된 교리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의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영원한 세대에 대한 교리를 가르친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것은 후대의 이해입니다.

이레네우스는 확실히 그 단어와 성부의 관계를 영원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그것을 세대, 세대로 묘사하는 입장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레네우스는 아들과 함께 성령을 밀접하게 연관시켰고, 하나님이 합리적이어서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또한 영적이며 또한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유스티누스보다는 테오피루스의 추종자임을 보여주었고, 성령을 신성한 지혜와 동일시켰으며, 그리하여 그의 3인칭 교리를 확실한 성경적 근거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말씀과 그의 지혜, 그의 아들과 그의 영이 항상 그 곁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혜이고, 그것은 영이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잠언 8장에서 한 진술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또한 잠언 3장 3:19과 8:22 이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영은 창조의 일에 협력하여 다시 하나님의 두 손이 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창조적인 아버지와 그의 활동의 기관 사이의 분리할 수 없는 일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되었습니다.

말씀의 기능은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었고, 영의 기능은 피조물을 질서 있게 하고 장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은 확립하고, 사물을 확립하고, 그들에게 몸을 주고 존재의 현실성을 부여하며, 영은 이러한 다른 권능에 질서와 형태를 부여합니다. 물론 창조는 말씀과 영의 기능을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말씀과 말씀만을 통해서만 아버지는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말씀은 그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신학의 요한 복음적 기초는 분명하며, 인용문에서 특징적으로 표현됩니다. 아들은 자신의 현현을 통해 아버지께 대한 지식을 드러냅니다. 아들의 현현은 아버지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용문에서 아들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버지이고 아버지 안에 보이는 것은 아들입니다. 닫기 인용문. 구약에서도 족장들과 함께 .

말씀의 성육신에서, 지금까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던 그가 보이지 않게 되었고, 사람이 원래 만들어졌던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으로 드러냈습니다. 영에 관해서는, 인용하자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영들이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의로운 자들이 의의 길로 인도되었고, 시대의 끝에 새로운 방식으로 부어져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새롭게 했습니다. 인용문 닫기 그는 훌륭한 사상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 이런 일의 일부는

초기 기독교인 중 일부가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들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사자를 피하고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교였고 골프와 비행기 조종 사이에 시간이 있었고, 어쨌든 그는 약간의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실제로 전적으로 영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사람을 정화하고 그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들은 완전히 신성합니다. 인용하자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영도, 이레네우스가 그를 분명히 신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명히 신성한 존재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는 신의 영이었고, 그의 존재에서 끊임없이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레네우스의 신격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테르툴리아누스 이전에 만난 가장 완전하고 가장 명확하게 삼위일체적인 것입니다. 2세기의 특성이 뚜렷하게 두드러지는데, 특히 삼위일체를 세 명의 동등한 인격이 아닌 이미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니케아 이후 교부들이 사용한 비유였지만, 오히려 한 인격인 아버지, 즉 신격 자체이자 그의 정신 또는 합리성과 그의 지혜를 가진 아버지입니다.

서양의 관점은 니케아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서양 관점을 촉진하고, 세 동등한 인격, 단일 인격인 아버지에 대한 개념은 창조나 종속의 방식이 아니라 신성의 근원이며, 동양적이며, 그 자체로, 또는 오늘날까지도 동양의 정통성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 사상가에게 공통된 이러한 접근 방식의 동기는 일신교의 근본 교리에 대한 강렬한 관심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결과는 후대 신학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생성이나 방출 이전에 아들과 성령의 인격으로서의 위치를 어느 정도 모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 즉 창조 이전, 영원이 아니라 창조의 역사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강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사상은 경제적 삼위일체론이라는 라벨을 받았습니다.

이 설명은 적절하고 편리하지만, 이레네우스가 경륜에서 제시된 삼위일체를 인식하고 이에 몰두했기 때문에 신격의 내면적 삶의 신비로운 세 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가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용한 위대한 설명적 용법의 요점은 지적 및 영적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록 부족하더라도 독특하고 나눌 수 없는 아버지의 임박한 존재에는 실제적인 구별이 있으며, 이러한 구별은 경륜에서만 완전히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영원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기에 좋은 지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3세기의 삼위일체론에 대해 다루겠습니다.